

# 캐나다 무신론·불가지론자 ‘불교’ 호감

〈밴쿠버 선〉지, 1백7십만명 대상 종교 설문조사 응답자 58% ‘불교, 달라이 라마’ 선호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는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밴쿠버 선(The Vancouver Sun)〉지가 21일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ns)’으로 불리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의 종교별 호감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불교와 가톨릭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밴쿠버 선〉지가 ‘인사이트 웨스트(Inights West) 여론조사’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는 무신론자 5십5만명, 불가지론자 5십5만명, 다종교주의자 6십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종교지도자, 종교철학, 종교수행, 동양종교 등에 대해 응답자의 관점을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선호하는 종교와 종교지도자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58%는 ‘불교와 티베트 망명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교는 다른 종교와 ‘창조자(혹은 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양종교 관련 문항에서 응답자 대부분 “윤리적인 행동에 따라 오는 보상이란 개념에 적극 호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밴쿠버 선〉지는 밝혔다. “이는 카르마

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그렇다’고 응답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밴쿠버 선〉지는 “응답자의 63%는 ‘죽음 이후에도 환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78%의 응답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별한 경우에 ‘불교, 가톨릭, 유대교, 시크교의 중

“

과반수이상 불교 선호 이유는?

타종교·절대자 강요 없어

기독교에 대해선 47%가 부정적

향후 캐나다 내 불교 성장 전망

”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밴쿠버 선(The Vancouver Sun)〉의 홈페이지.

교 시설에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반면 ‘기독교와 예수의 선호도’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7%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이중 55%는 “가톨릭과 교황 프랜시스 1세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밴쿠버 선〉지는 “기독교와 예수의 선호도”를 묻는 설문에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보다는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

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인사이트 웨스트(Inights West) 여론조사’ 관계자는 “〈밴쿠버 선〉지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동양의 종교와 철학 특히 불교가 캐나다의 정신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불교 교세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 ‘차고 건물’이 ‘불교문화복합단지’로

美 웨스트 벨리 시티, 첫 캄보디아 불교사원 들어선다  
지역 캄보디아 불교계 20년 숙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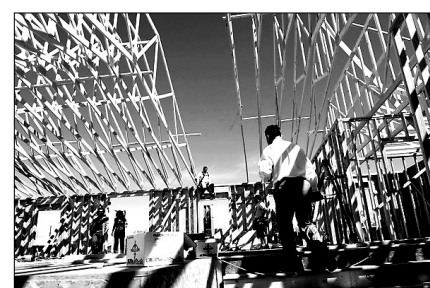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위성도시 웨스트 벨리 시티(West Valley city)에서 캄보디아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되고 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The Salt Lake Tribune)〉지는 21일 “유타(Utah)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웨스트 벨리 시티에서 캄보디아 불교계의 첫 귀의처가 될 사라첸(Sala Chhan) 사원이 건축되고 있다”며 “이는 웨스트 벨리 시티 캄보디아 불교계의 20년 숙원 사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리프(Sarith) 스님은 “살라 찬 사원은 부처님 도량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300여 명이 함께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되고 있는 사라첸 사원은 이제 캄보디아인만의 성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귀의처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한 사리프 스님은 웨스트 벨리 시티에 정착한 후 이 지역의 차고 건물을 임대, 부디카르암(Buddhikaram) 사원이라는 편액을 걸고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신심을 달래 왔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따르면, 웨스트



美 유타(Utah) 주 웨스트 벨리 시티의 첫 번째 캄보디아 불교사원인 ‘사라 첸(Sala Chhan)’ 사원의 건축 현장.

벨리 시티 캄보디아 불교계의 첫 사원이 될 사라 첸 사원은 ‘부디카르암’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던 차고 건물을 지난해 말 매입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차고 건물 매입비용은 범회와 축재 때마다 마련한 바자회의 수익금과 캄보디아 이민 2세대의 적극적인 회수금으로 충당했다.

“사라 첸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베니 느헴(Vanny Nhem · 44 · 이민 2세)씨는 “캄보디아 전통무용을 배우고 선보이며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문화학교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캄보디아 불교문화 복합단지 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오중욱 편집위원

## “인도, 불교문화재 관리 허술하다”

인도 문화단체, 정부에 소송 제기할 계획

인타치(인도 예술문화유산신탁, INTACH:Indian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 회원들이 톨라콘다와 바비콘다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 불교유적지에 대한 당국의 관리 소홀을 문

제삼았다. 두 곳에 위치한 부조 유적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숙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비콘다 유적지 일부는 주택사업 용지로 전용되기도 했다.

인타치 회원들은 “2월 톨라콘다와 바비콘다 지역을 여행하던 관광객들이 유물 속에 숙박요청을 했다”며 “당국은 간청에 못 이겨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유적지 관리보다 관광객 요구가 중요한 것”이라며 맹공을 폈다.

이와 더불어 안타치 회원인 라니 사르마

씨는 2009년 당시 수상과 의회 부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문화재청이 ASI(인도 고고학연구소, 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기준에 따라 유적을 관리할 기술이나 인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ASI가 유적지를 인수받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관리들이 편지를 받은 후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 기도 했다”며 “그들 역시 2300년 역사를 지닌 유적지를 ASI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도 정부가 불교 유적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수년 동안 유적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인도 톨라콘다에 위치한 불교유적지 입구(사진 왼쪽)와 내부(사진 오른쪽).

## 美 불광사, 환경 지키고, 화합 다진다

제3회 지구의 날’ 기념법회 봉행... 타종교계도 참여 눈길

미국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불교계가 환경 운동에 적극 나서서 한편 종교 화합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뉴스옵저버(Newsobserver)〉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북동쪽 중앙에 있는 웨이크 카운티의 불광사에서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자연보호 주의자들이 전역에서 자연의 보호와 관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뉴스옵저버〉지는 “웨이크 카운티의 불교계는 올해로 세 번째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며 “특히 올해 불광사의 ‘지구의 날’ 행사에는 웨이크 카운티의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광사 ‘지구의 날’ 기념법회에 참

석한 린다 채플린(Linda Chaplin · 가톨릭)씨는 “자연을 지키는 일에 종교의 벽은 있을 수 없다”며 “부활절 기간이지만, 불광사에서 열린 ‘제3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종교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념법회 진행을 맡은 질 첸(Jill Chen)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 하나는 환경의 경구 그 자체”라며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불교의 덕목은 현대인들이 지구를 지키는 가장 큰 덕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범종교 행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웨이크 카운티의 각 종교 지도자를 만나 ‘지구의 날’ 행사를 공동 주최자는 데 공의를 모았다.

〈뉴스옵저버〉지는 “모든 종교는 인간,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캐롤리나 라모스(Carolina Ramos · 유대교)씨의 말을 인용하고, “이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재정한 ‘지구의 날’ 행사에 각 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불광사에서 ‘제3회 지구의 날’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기념법회에는 웨이크 카운티의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교계가 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라며 “불광사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웨이크 카운티의 종교간 소통의 길도 열어주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

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닐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 나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오중욱 편집위원

##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감원 원각  
사부대중일동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 대한불교 조계종 안흥사

주 지 대응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기도와 연등을 올립니다.

불기 2558년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대구교구

- |      |          |         |          |
|------|----------|---------|----------|
| 교구원장 | 고봉(달마선원) | 교구총회위원장 | 해일(문수사)  |
| 총무   | 무경(세명정사) | 감사      | 무쌍(보국사)  |
| 사회   | 법광(법정사)  |         | 법성(도광사)  |
|      | 도정(송학사)  |         | 만성(정수사)  |
|      | 석경(무상사)  |         | 보훈(평등사)  |
|      | 지공(혜각사)  |         | 법인(법화선원) |
|      | 도법(도정사)  |         | 무상(보현암)  |
|      | 무상(영통사)  |         | 지현(법천사)  |
|      | 석월(성주사)  |         | 동호(죽림사)  |
|      | 정암(천월사)  |         | 명신(제왕사)  |

경덕 성수 금용 지명 도선 보리심 무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을 함께하실 도반 여러분의 임종을 환영합니다.

대구교구 총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439번지 달마선원 053)986-7134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해인사) 전화 055)932-7308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전화 053)815-4030 FAX 053)814-5142